

청나라의 다민족문화정책 : 티베트불교세계를 중심으로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
2016년 3월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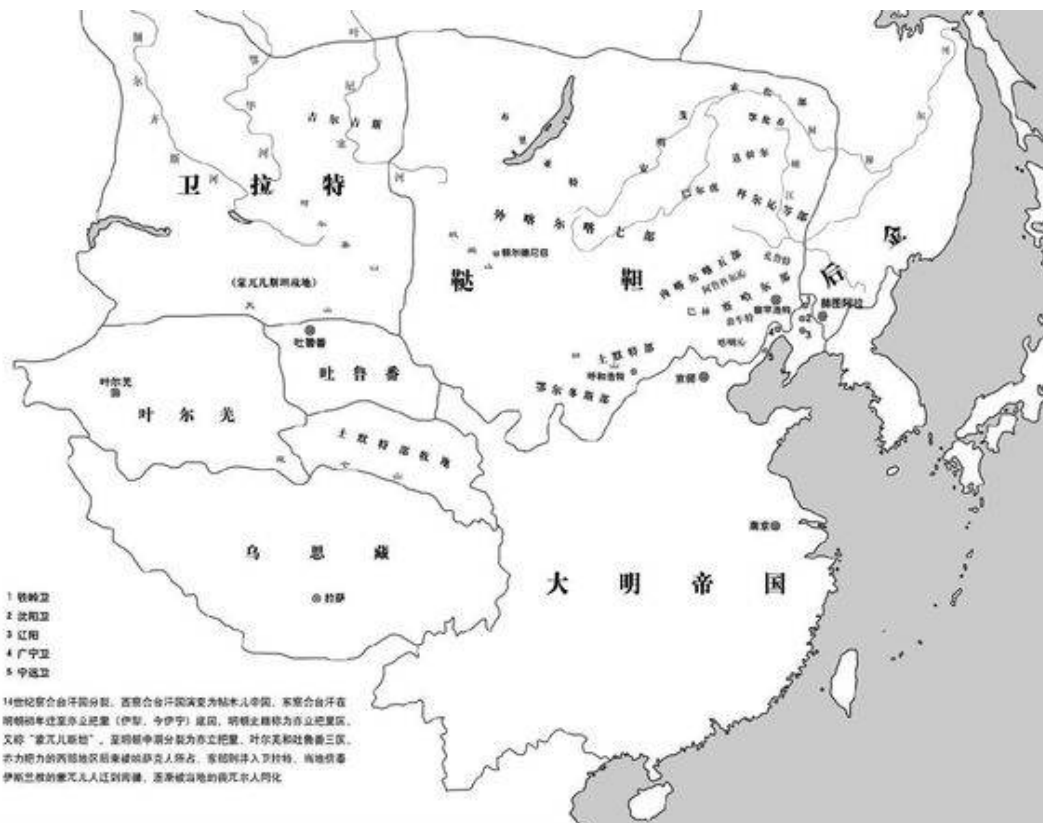
1. 청초(淸初) 내륙아시아와 불교

▶ 16세기 중엽 몽골은 암도(Amdo, 安多)를 장악하고 티베트와 접촉하고, 투메트 몽골의 알탄칸이 달라이라마 3세를 만나게 되면서 티베트불교는 몽골 전역으로 확대

https://en.wikipedia.org/wiki/Tumed_Left_Banner

(투메트 몽골의 위치)

당시 불교전파 지역은 흑호트와 차간호트를 시작으로 해서, 할하와 오이라트에



도 다수의 티베트 사원이 건설됨. 대표적인 것이 할하 카라코룸에 세워진 에르데니 주(erdeni zuu) 사원.

<https://en.wikipedia.org/wiki/Hohhot>

(흑호트)

<https://en.wikipedia.org/wiki/Chif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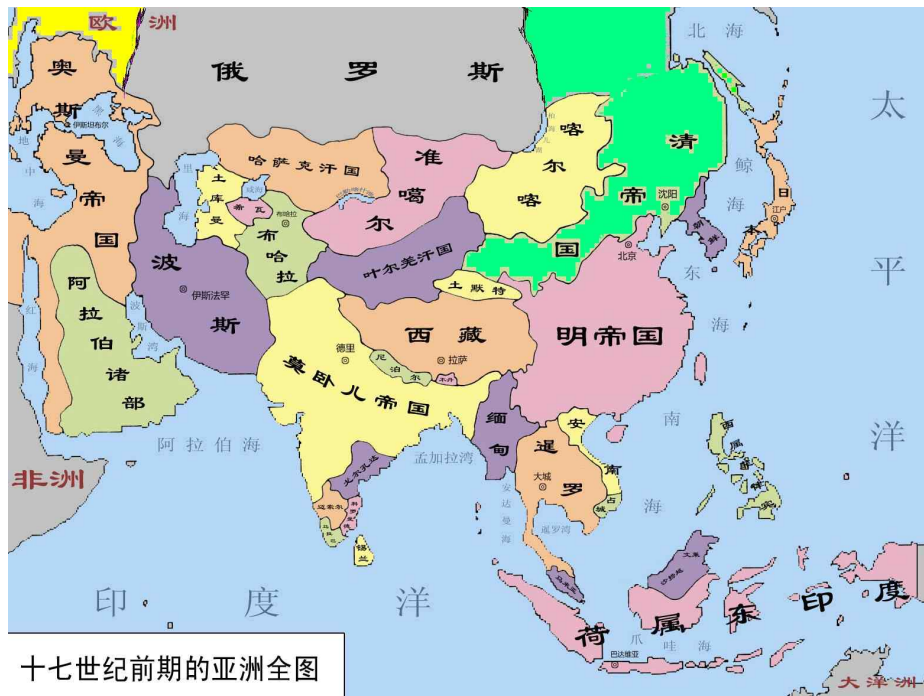
(차간호트)

https://en.wikipedia.org/wiki/Erdene_Zuu_Monastery

(에르데니 주 사원)

이로 인해 당시 몽골의 사원들은 티베트의 주요 사원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티베트를 제외한 내륙 아시아 불교세계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함.

▶ 청조의 성경(盛京; 瀋陽)



청이 입관하기 전인 성경시대에는 물론 순치제를 거쳐서 강희제에 이르기까지도 청조 내 불교의 위치는 확고하지 못함.

이에 비해 당시 할하, 오이라트(준가르), 호쇼트 등 몽골 각 부족들은 각자의 정치적 정통성과 위상의 제고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티베트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티베트불교 내부에서는 겔룩파가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지도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

따라서 몽골 각 부족들의 세속 군주와 승려들은 경쟁적으로 겔룩파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라싸로 몰려들었고, 17세기 후반 절정에 달함.



- ▶ 중요한 점은, 몽골 각 부족 사이의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동에 따라서 라사를 방문하는 세속 군주나 승려의 출신지들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
- ▶ 티베트 라사는 점차 17세기 “티베트불교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되어감

2. 청나라와 티베트불교

- ▶ 티베트는 몽골, 위구르와 함께 청나라의 주요 내번(內藩) 중 하나.

<http://seven00.tistory.com/574>

(朝貢冊封체제)

청나라 번속국(藩屬國=外藩)은 초창기에는 조선 뿐이었으나, 건륭제 시기에 이르러 동남아의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히말라야 산맥의 네팔, 시크, 부탄 및,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까지를 포함.

번속국과 청나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번속국이 조공을 하고 청나라는 책봉을 하는 관계였으나, 실제상으로는 중국과 주변국가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형식이었고, 통치와 피통치를 의미하지는 않음.



▶ 청나라 황실도 독실한 티베트 신자였고, 내륙아시아에서 티베트불교가 누리는 위상 때문에, 내번들 중에서도 티베트의 지위는 매우 특수. 청 황제들은 티베트불교의 주요 라마를 초빙하여 법회를 열고 사원 건설을 주재했으며, 라마들을 駐京라마로 임명하여 북경에 머물게 하는 경우도 빈번.

▶ 유목군주로서 출발한 청나라 황제는 티베트불교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내륙아시아에서 문수보살의 화신이자, 전륜성왕이자, 티베트불교의 신실한 施主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고, 漢人들에게는 유교적 聖王으로서 중화의 계승자로서 자처. 이로써 청나라는 티베트불교를 매개로 해서 몽골을 뒤이은 유목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초원의 세계와 중화의 세계를 동시에 지배하게 됨.



3. 티베트불교 지도자와 청나라 황제의 만남

▶ 티베트불교 내부에는 여러 교파들이 지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 또한 교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실력있는 시주를 원하고 있던 티베트불교 측의 요구와 불교세계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내륙 아시아 지역 질서의 조정자로서 등장하고자 했던 청나라의 요구가 접점을 찾은 것의 상징

적인 사건이 바로 1653년 순치제(順治帝)와 달라이라마5세의 만남.



<http://baike.baidu.com/link?url=tAYLBjT0pOMDfTNR1Lo2ynRxtCA8U8n4H-otaTgAKmTT0nTy60CdK6Fj10GKf-ol>

(黃寺)

▶ 달라이라마 5세가 청으로부터 북경 방문 초청을 받은 것은 1637년으로 청의 입관(1644) 전. 1648년말 1649년초 사이에 청나라의 초청을 공식 수락.

▶ 겐룩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청나라 입관 이후의 상황전개의 유동성, 달라이라마의 북경 방문에 대한 몽골 군주들의 입장, 달라이라마의 부재가 티베트정국에 미칠 영향 등.

▶ 한편 청나라 입장에서는 할하 몽골을 비롯한 주변 몽골세력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달라이라마 5세 북경 방문 초청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해 몽골 측은 청나라가 자신들과 함께 방문을 요청하는 사실을 티베트에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회신을 홍타이지(태종)에게 보냄.

: 이것은 당시 청나라가 몽골의 여러 세력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 세력들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티베트와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상

황이었다는 사실.

▶ 결국 1653년 정월 북경을 방문한 달라이라마 5세를 순치제는 황궁이 아닌 南苑에서 맞이함. 위 그림에서 비록 달라이라마 5세의 자리가 순치제보다는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상호 티베트불교 세계의 양대 지주임을 인정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http://map.baidu.com/?newmap=1&ie=utf-8&s=s%26wd%3D%E5%8D%97%E8%8B%91>

(南苑 지도)

▶ 달라이라마 5세는 북경 방문을 통해서, 달라이라마 3세가 못 다 이룬 북경 방문을 완수했고, 티베트를 벗어나서 몽골, 만주로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고, 청나라라는 실력있는 시주를 얻게 되고,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로 군림하게 됨. 청나라로서는 드디어 내륙아시아 불교세계의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4. 건륭제와 판첸라마 6세

▶ 18세기 중엽 청나라는 몽골을 완전히 제압하여 내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고, 티베트불교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몽골 세력과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티베트불교 사원들(팔왕묘)을 承德에 건립

http://baike.baidu.com/link?url=l60DQMIcGx9CzV1U0Lqa8TMF6DIdCKQ17IzGJgne0acphSMbZHyohOdV-Z91pZKkCo9M7k39xsWHp10tk6UKB_-

(팔왕묘)

▶ 승덕의 건설은 강희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만주를 포함하는 유목세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내륙아시아 티베트불교세계의 질서를 아우르려는 노력을 상징

▶ 건륭제 고희 축하연을 위해서 판첸라마 6세는 1780년 승덕에 도착

http://baike.baidu.com/link?url=jy9Vm54j1Ey35uwB9JXliQR1HMHF5anqi_L4DetDkcmprS63qVcoC0xE9eDofEw4L9nbSDo0_0HTnGE0N5pRF7i671TcrX8GkIAR9e34XWj5rQBWRfStzjo6g_YTvsnsyWTNnVgy9tKUgRgPZu7pOWcXVeryDJjcW2jnzPkzn5FNtvY24D9-xrRxBRUCMFik

판첸라마 6세

▶ 당시 상황은 달라이라마 5세의 북경 방문 때와는 달리, 몽골과의 경쟁에서 청나라가 이미 승리했고 내륙아시아의 구도가 청나라로 이미 기운 상황
: 중요한 점은 청나라가 티베트불교세계의 세력분할을 추진하여,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제브준단바 등 여러 불교지도자의 영향력을 티베트와 몽골의 일부지역으로 축소시키고, 판첸라마와 제브준단바에 대한 예의를 상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 이 때 건륭제의 國師 창카 후투투는 몽골어, 티베트어, 한어, 만주어에 능통한 인물로 티베트, 암도, 몽골 등 다양한 티베트불교세계의 교단업무를 담당하는 인물로 황제의 최측근.

: 창카 후투투를 계기로 駐京라마를 통한 청나라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됨. 강희제부터 건륭제에 이르기까지 청나라는 여러 정치권과 문화권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을 대리해서 불교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창카 후투투이고, 청나라는 의도적으로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 이후 청나라는 자신의 의지를 티베트불교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불교지도자들을 북경에 주재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내륙아시아를 지배.

▶ 이것은 티베트불교세계의 중심이 티베트와 몽골에서 청나라 북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 그 상징이 바로 승덕의 건설과 주경라마제도의 확립

▶ 이후 황제의 이미지는 티베트불교세계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윤색될 필요가 생김. 이에 따라 대규모 사원을 건립하고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로 된 대장경을 편찬했고, 건륭제는 스스로를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분식했을 뿐 아니라 불교수행에도 적극 참여.

5. 티베트 불교 교파

티베트 지역에 전파된 인도불교는 현교와 밀교가 있었고 유파의 종류도 많았는데 이는 전승된 밀법(密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기 교파를 세우게 된다. 동시에 불교세력과 지방영주가 점차 결합하여 각 사원들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것도 티베트 불교에 다양한 교파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이다.

이로부터 티베트 불교에는 닝마파 카담파 사카파 카규파의 4대교파가 성립

되고 나중에는 겐룩파가 생겨난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A%B5%90>

(현교)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A%B5%90_\(%EB%B6%88%EA%B5%90\)](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A%B5%90_(%EB%B6%88%EA%B5%90))

(밀교)

▶ 닝마파: 오래된 밀교

닝마(Nyingma)는 티베트어로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이 교파는 자신들의 교법이 8세기 파드마삼바바로부터 전승되어오는 것으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토번왕조 시기에 번역한 밀주(密咒)를 위주로 한다. 닝마파는 결국 오래된 밀교를 표방하는 데서 그 교파의 이름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승려들이 쓰는 모자가 붉은색이기에 속칭 홍교(紅敎)라고도 한다. 닝마파는 불교가 티베트 현지의 본교의 교리를 흡수하여 형성된 가장 초기의 티베트 불교 교파라 할 수 있고, 밀법의 수련을 중시하고 가족 내 부자와 형제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승되기 때문에, 사원이나 교파의 이론적 교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랑다르마의 불교탄압 시기에 닝마파가 받은 타격도 별로 없는 것이다. 11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닝마파 사원과 경전이 생겨나고 정식으로 하나의 교파를 형성했다.

▶ 현교와 밀교를 모두 중시하는 카담(Kadam)파

“카(Ka)”는 티베트어로 부처의 말씀이란 뜻이고 “담(dam)”은 교수(敎授) 혹은 교계(敎誡)이란 뜻으로, 카담은 현교와 밀교의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을 포함하는 모든 부처의 말씀으로 중생들이 불교의 도리와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닝마파를 제외하면 티베트 불교 후반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교파가 카담파이다. 카담파의 기원은 아티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레팅 사원을 본사(本寺)로 하여 불법을 전파한다. 카담파는 현교와 밀교가 상호순이 아닌 상호보완관계가 되어야 하고, 먼저 현교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밀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세기 황교(黃敎) 곧 겐룩파는 이 교파를 기초로 발전하여 이 교파를 대체해 나간 것이다.

▶ 한 시대를 풍미한 사카파

11세기 사카파를 창시한 콘 콘축 갈포(1034-1102)는 귀족 가문인 콘(Khon) 가문의 후예이다. 콘 가문은 대대로 닝마파를 믿어 왔고 깨달음을 얻

은 인물도 있었다. 콘축 갈포가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를 따라 닝마파의 가르침을 수행하던 중 승려들이 가면을 쓰고 밀종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이를 신기하게 여겨 집에서 수행 중이던 형에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자 형이 이제는 새로운 밀종의 시대가 왔으니 이를 공부할 것을 권했다. 콘축 갈포는 위대한 번역가로 이름 높았던 드로그미 샤카 예세(994-1078)를 찾아가 수행을 하게 되고 1073년 샤카 사원을 세우고 자신의 교파인 사카파를 창시하게 된다. 티베트어로 사카는 회백토(灰白土)란 뜻이다. 사카 사원의 담과 신도들의 방에는 모두 홍(紅) 백(白) 남(藍)의 3가지 색깔이 칠해져있고 이것들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수보살을 각각 상징한다.

▶ 지파가 많은 카규파

상파 카규와 닥포 카규

티베트어로 카규(Kagyu)는 "입으로 전승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 교파가 스승에서 제자로 입과 귀를 통해서 그 밀법을 전승하는 수행방식을 특히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교파의 조사인 마르파(1012-1097)와 밀라레파(1052-1135)가 수행을 할 때 인도의 습관에 따라 흰색 승려복을 입고 했기 때문에 백교(白敎)라고도 한다.

카규파의 전승은 비교적 복잡한데 초기에는 두 개의 계통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쿵포 날조르(990-1139)에서 시작되는 상파 카규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르파에서 시작되는 닥포 카규이다. 이 두 계통은 모두 원래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티베트로 들어온 후 그 전파 지역의 차이로 인해 규모도 큰 차이를 보여, 상파 카규는 14, 15세기에 이르러 이미 거의 사라지지만, 닥포 카규는 여러 개의 지파로 나뉘어 전승된다. 이로 인해 카규파는 일반적으로 닥포 카규를 의미하게 된다.

6. 금병체첨(金瓶掣籤) -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에서 발췌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 티베트 불교의 교파들 간의 분쟁이 격렬했다. 몽골의 대활불이 입적한 후 전세영동(轉世靈童)은 주로 명망 있는 무사(巫師)가 굿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관례였는데, 무사들이 각종 뇌물을 받아 굿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 뜻을 가장하여 지명한 전세영동은 대부분 몽골의 왕공이나 티베트의 고위귀족 가문출신이었다.

건륭제도 활불전세 관례의 이러한 폐단들을 인식하고 청나라가 직접 활불 전세영동의 지명과 확인 권한을 장악하여 티베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금병체첨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활불 및 후투투의 전세영동을 찾을 때 기존 티베트의 구례(舊例)에 따르면 그 영동을 확인하는 것은 점을 쳐서 사대호법에게 물어보는 방식인데 이것은 각종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황제는 겔룩파의 발전을 바라며 금병 하나를 하사하니 앞으로 영동을 찾아야 할 경우 사대호법(四大護法)을 모시고 영동의 이름과 출생일을 만(滿) 한(漢) 장(藏) 3가지 문자로 쓴 패(牌)를 금병 안에 넣고 먼저 학문이 높은 고승을 뽑아 그로 하여금 7일간 기도를 하게 하고 각 후투투들과 주장대신(駐藏大臣)이 조강 사원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발견한 영동이 한명에 불과한 경우 반드시 또 다른 영동의 이름을 쓴 패를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패와 함께 금병에 넣고, 만약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패가 나오면 기존에 찾은 영동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신동을 찾는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에르데니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신들의 영동을 확인할 때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만 한 장 3가지 문자로 패에 쓰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병체첨 제도는 두 개의 금병을 마련하여 하나는 북경의 옹화궁(雍和宮)에 두어 몽골 활불의 전세영동을 찾는데 사용했다. 나머지 하나는 라싸의 조강 사원에 두고 티베트 청해 등지의 활불의 전세영동을 찾는데 사용했다. 금병체첨 제도가 실시된 이후 1793년부터 옹화궁과 라싸에서 후투투의 전세영동을 확정했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에르데니 두 활불의 전세계통에 대해서는 청나라는 금병체첨 제도를 실시했지만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1840년 확정된 9대 달라이 라마 룡톡 가초(1805-1815)와 1875년 확정된 13대 달라이 라마는 이 제도를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대체로 티베트 불교는 70여명의 전세영동이 금병체첨 제도를 통해 확정되었고 그 범위는 겔룩파와 닝마파 및 카르마 카규파의 몇 개의 지파에 까지 이른다.

7. 옹화궁

북경시 동성구(東城區) 북신교(北新橋) 북쪽에 위치한 사원이다. 현존하는 북경 최대 규모의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원래는 1694년 강희제가 저택으로 만들어 네 번째 아들인 옹친왕(雍親王)에 주고 옹친왕부(雍親王府)라 불렀다. 1725년 옹정제 때 행궁(行宮: 황제가 황궁을 나왔을 때 거처하는 곳)으로 바뀌어 옹화궁이라 불렀다. 1735년 옹정제가 사망했을 때 운구가 잠시 여기서 머물렀고 건륭제도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황제의 풍격을 가진 곳으로 인정되어 황궁인 자금성과 같이 황색 기와와 홍색 담으로 지어졌다. 1744년 건륭제는 옹화궁을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바꾸고 특별 관리를 한 이후 옹화궁은

청나라 황실의 불교사원임과 동시에 전국의 티베트 불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심이 되어 청나라와 티베트 몽골을 이어지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청말에는 이곳에서 금병체첩을 통해 17대 창카 활불 및 몽골 청해 등지의 활불들을 확정했다. 1780년에는 옹화궁 안에 특별히 누각을 지어 티베트 6대 판첸 라마가 북경으로 와 건륭제에게 수계식(受戒式)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2

김성수, “청대불교세계의 여행”, 『동양사학연구』 107, 2009

지토 편집부 박철현 역,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새물결, 2011
추천도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996453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446625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086305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